

남구, 덕남동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 조성 사업 완료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덕남동에 위치한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 조성 사업이 10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남구는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적 공간을 활용한 휴식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 가량을 투입해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을 조성했다”며 “향등제 주변에서 고품격 여가생활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은 빛고

을 전남대병원과 현재 광주시에 조성 중인 시립수목원 중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저수지를 둘러싼 개발제한구역 내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남구는 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1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공모 사업 참여로 사업비를 확보한 뒤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를 진행해 왔다.

현재 향등제 주변 4,800㎡ 일원에

는 능수버들을 비롯해 이팝나무, 화살나무, 산철쭉, 흰말채나무, 조팝나무, 은사초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식재됐으며,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도록 그늘막 벤치와 워터, 데크 및 야자매트 산책로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은 저수지 둘레길을 따라 광주에서 양과동에 조성 중인 시립수목원과도 연결되며, 시립수목원 조성 사업은 올해 안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은 효천지구의 새로운 명품 산책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에서 출발해 빛고을 전남대병원과 덕남 새뜰마을, 향등제 수변 건강누리길을 가로질러 시립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긴 거리의 힐링 산책로 벨트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서기만 기자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2021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성부문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자치단체 평가 제도로, 서구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생태학습도서관의 특화된 생태체험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이용자의 만족도와 대출권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큰 점수 크게 부각됐다.

특히, 아이들이 생태체험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생태 나드리(NADLI: NAture, Dream, Library)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특화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 도서관 최초로 ‘생태도서관 탐험대’, ‘푸른별 환경

캠프’ 2개 프로그램이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제’에 선정되는 등 생태특화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어린이 생태 독서운동회,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앞서 열거한 각종 생태친화 프로그램 및 사업들과 함께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만족도 조사, 주민 호응도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의 환경 감수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관계자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다채로운 특화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지역 내 유일한 생태특화도서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광산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광주 광산구는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지난 5월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이다.

광산구 지원규모는 약 1만5천가구로,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부터 7인 이상까지를 기준으로,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145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가 8인 이상인 경우엔 7인 기준을 적용한다.

광산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형 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29일부터 7월5일까지는 5부제를 시행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맞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7월6일 이후부터 8월 1일까지는 생년월일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잔액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형태로 해당 시설에 1인당 20만 원을 현금 지급한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동명동 상권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회장 남병호)와 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ACC-동명공동체 지역상생 협약 연장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동명동 상권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선옥),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회장 남병호)와 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6월에 맺은 상생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그동안 세 기관이 합

께 해 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설주차장 이용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간 콘텐츠 교류 홍보 ▲지역발전 및 공동번영을 위한 목표 공유 등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날 갱신으로 협약에 참여한 동명동 내 상가는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협력가게’로 지정돼 해당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은 기준처럼

문화전당 부설주차장에 1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문화전당 유료 전시·공연을 관람한 고객이 협약에 참여한 상가 이용 시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 기관의 지역상생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지역 상가를 방문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기만 기자

북구 여성행복지원센터, 토크콘서트 강연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5일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가족 소통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초 개관한 북구 행복여울센터 내 ‘여성행복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잘 알려진 김 교수는 ‘존중과 배려,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족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행사 당일 강연 참가자를 대상으로 N행시 이벤트가 진행된다. 주제는 ▲여성친화도시 ▲여성행복지원 ▲가족 소통 등 3단어이며 1단어를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N행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된다.

강연과 N행시 참가 신청은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이메일 또는 여성행복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강연이 주민들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여성행복지원센터가 광주YWCA 등 유관 단체와 협력해 북구 여성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후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3단계’에 지정됐으며 여성행복지원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정책 홍보, 여성 네트워킹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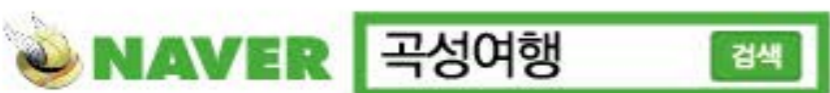
/서기만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작상 수상작